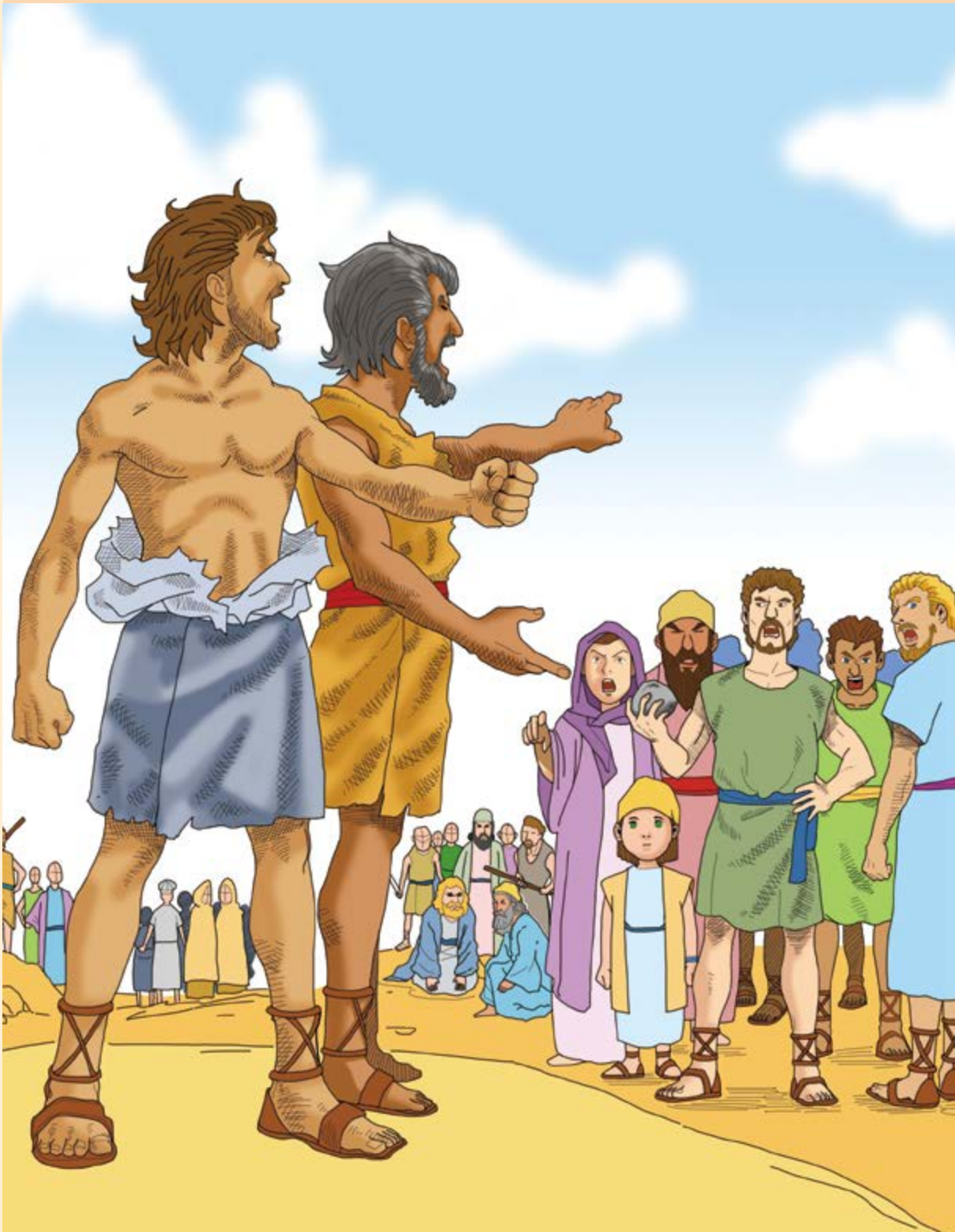


29 정탐꾼들의 보고

민수기 13~14장



그 땅 백성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
니다. 그들의 보호자
는 그들에게서 떠났
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근처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족장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가나안 땅은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은 사십 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땅의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강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다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죽이려고 하시고, 차라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열두 명의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십 세 이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을 떠돌며 모두 죽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
경
암
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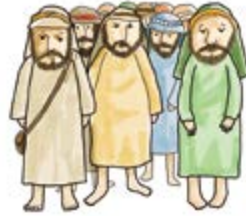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38)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각각 가나안 땅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음 그림 안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탐꾼이었다면 어떻게 말했는지 써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

- 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 ②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다.
- ③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 ④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 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3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져요



성은이와 민지는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성은이는 민지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지네 집은 성은이의 교회에서 무척 멍니다. 그리고 민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성은이는 민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지를 전도하는 건 불가능해.
집도 멀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내가 말하면 사이만 멀어질 거야.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하고 성은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인지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만 보지 않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용감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두려워 말라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브랜트 목사는 감옥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몇 번이나 쓰여 있는가를 세어 보았습니다.

정확히 365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1년 365일 매일 한 번씩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는 특별히 손때가 묻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입니다.
그곳은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링컨은 남북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